

『玉臺新詠』 중의 남성동성애 시가 연구*

권혁석**

目 录

1. 서론
2. 남성동성애의 명칭
3. 남조시기 남성동성애의 유래와 성행 배경
 - 1) 역사적 유래
 - 2) 심미적 배경
4. 『玉臺新詠』 중의 남성동성애 시가
5. 결론

1. 서론

『玉臺新詠』은 詩經, 楚辭를 제외한 최초의 시가집으로 수록된 작품은 남조 梁代의 유미주의 사조를 반영한 여성과 관련된 염정시들이다. 그러나 작품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古詩爲焦仲卿妻作」과 같이 시가사적으로 의미가 큰 작품들 또한 적지 않다. 그중에는 女色과 비견되는 男色, 즉 남성동성애를 소재로 한 남조시기, 특히 梁代의 작품들이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 또한 시가사적으로 의의가 크다.

천지와 음양의 기운을 이어받은 남녀의 성적 욕구는 인류의 가장 큰 본능이자 인류를 존속시키는 절대적인 원동력이다.¹⁾ 이러한 관점

* 2017년 한국교통대학교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 韓國交通大學校 Global語文學部 中國語專攻 教授

1)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https://ctext.org/liji/zh>)(『禮記·禮運』): 음식과 남녀에는 인간의 큰 욕망이 존재한다.(飲食男女, 人之大欲存焉.)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https://ctext.org/book-of-changes/xi-ci-xia/zh>)(『易·繫辭下』): 천지의 음양의

에서 볼 때 종족유지와는 별개인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며 비주류인 ‘퀴어(queer)’적인 애정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이며 비주류에 속하는 남성동성애를 반영한 시가가 문인에 의해 창작되고, 또 『玉臺新詠』이란 시가집 속에 수록된 배경에는 시대사조와 심미의식의 결합, 즉 남조시기 여성적 심미의식의 대두와 시가를 위한 시가 창작이라는 유태주의 사조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 직접적으로는 “문학은 모름지기 구애받음이 없이 자유롭게 표현해야 한다.”(文學且須放蕩)라는 梁代 蕭綱의 문학관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고전시가는 ‘溫柔敦厚’²⁾의 유가의 詩教에 바탕을 두고 유가의 예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른바 ‘大雅之堂’으로 간주되는 문인시가와와는 거리가 멀게 보이는 남성동성애를 반영한 시가들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비록 수량은 많지 않지만 이러한 시가들이 현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남조 梁나라 때 나온 여성관련 시가집인 『玉臺新詠』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이 현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玉臺新詠』의 남성동성애 시가의 내용을 통해 시가에 반영되어 있는 동성애의 특징을 살펴보고, 특히 동성애가 시가에 반영된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고찰에 앞서 기존의 연구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고대 동

기온이 왕성하게 작용하여 만물이 두루 발생하고, 남녀 양성의 정기가 서로 어우러져 모든 생명체가 태어난다.(天地絪縕，萬物化醇，男女構精，萬物化生.)

2) 예술원칙의 각도에서 말하자면, 孔子가 『詩經』의 첫 작품인 「關雎」에 대해서 “즐겁지만 도를 지나치지 않고, 슬프지만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다.”(樂而不淫，哀而不傷)라고 한 것이나, 孔穎達이 “溫柔敦厚”의 詩教에 대해 “‘溫’은 안색이 溫潤함을 말하며, ‘柔’는 성정이 부드러움을 말한다. 詩經詩는 동조와 반대를 명확히 하지 않고 풍간하면서, 어떠한 일을 지적하며 질책하지 않는다. 그래서 ‘溫柔敦厚는 詩經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다.”(溫謂顏色溫潤，柔謂性情和柔。詩依偉諷諫，不指切事情，故云‘溫柔敦厚，詩教也。’)라고 해석한 것과는 통한다. 이러한 유가의 시교로 인해 직접적이면서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汪涌豪·駱玉明, 『中國詩學』(第4卷), 上海: 東方出版中心, 1999, 275-276쪽.

성애의 역사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로는 『曖昧的歷程_中國古代同性戀史』³⁾가 있는데, 이는 동성애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놓은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의 주제와 보다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연구들로는, 「英譯『玉臺新詠』與“同性戀愛”詩」⁴⁾와 「從『玉臺新詠』看中國古代詩歌對同性戀的表現」⁵⁾이 있다. 전자는 蕭綱의 「變童」시 등 몇 수에 대한 영역의 명확성과 모호성에 대한 연구이며, 후자는 『玉臺新詠』의 시 중에 동성애를 반영한 시의 예를 들고 각 시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으며, 후반부에서는 『世說新語』를 예로 들면서 동성애와 관련된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문은 전무하며, 明清의 소설과 희곡에 반영된 동성애 연구가 대부분이다.⁶⁾ 이상의 연구들과는 달리 본고는 특히 동성애가 시가에 반영된 의의에 치중하여 연구를 진행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2. 남성동성애의 명칭

기존의 연구를 보면 중국의 고대 시가에 반영된 비정상적 애정 형태를 주로 단순히 동성애[同性戀]라고 명명하고 있는데,⁷⁾ 현대적

3) 張在舟, 『曖昧的歷程_中國古代同性戀史』,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2001.4.

4) 李貽蔭·陶第遷, 「英譯『玉臺新詠』與“同性戀愛”詩」, 『長沙水電師院學報(社會科學版)』, 1990年 第2期.

5) 何水英, 「從『玉臺新詠』看中國古代詩歌對同性戀的表現」, 『安徽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10卷 第4期, 2008.12.

6) 「중국의 동성애 문화와 『品花寶鑑』」(한중완, 2006, 발표논문), 「명말 남성동성애 소설 비교 연구」(최운주, 2016, 『중국문화연구』 33집), 「명청소설에 묘사된 성적 소수자에 관한 시론_남성동성애를 중심으로」(송진영, 2005, 『중국어문학지』 17집), 「紅樓夢에 반영된 동성애」(이광보, 2004, 『중국인문과학』 28집), 「중국 전통극의 ‘男旦’과 남성동성애 풍조」(김영숙, 2005, 『중국학보』 51집) 등.

7) 참고문헌 목록에 나타나 있다.

의미에서 세분하면 동성애 관련 용어로는 크게 남성동성애, 여성동성애, 양성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고는 이 중 여성동성애와는 무관하며 나머지 두 개념과 관련이 있다. 동성애는 사전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동성 간의 사랑 또는 동성애에 대한 사랑.⁸⁾

동성애(Homosexuality)는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으로 같은 성별을 지닌 사람들 간의 감정적, 성적 끌림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게이는 남성동성애자, 레즈비언은 여성동성애자를 일컫는다.⁹⁾

본고의 주제어인 남성동성애는 남성의 이성인 여성이 아니라 동성인 남성애에 대한 감정적, 성적 끌림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대 중국의 기록이나 문학작품에 묘사된 남성동성애는 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현대적 동성애 같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개념이 모호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선 남성동성애에 관한 명칭과 그 함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대해 張在舟는 일목요연하게 명칭을 망라하여 정리했는데,¹⁰⁾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 명칭을 들어서 보충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佞幸: 아침을 통해 군주의 총애를 받는 사람 또는 남색을 통해 군주를 섬기는 신하를 가리킨다. ‘嬖人’, ‘嬖臣’ 등도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말이다. 『史記』와 『漢書』의 「佞幸傳」의 인물이 여기에 해당된다.

- 分桃: 彌子瑕¹¹⁾ 고사에 의한 명칭으로, ‘餘桃’, ‘殘桃’라고도 한

8) 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

9)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

10) 張在舟, 앞의 책, 9-19쪽 참조.

11) 春秋시대 衛나라의 총신인 彌子瑕. 그가 복숭아를 반쯤 베어 먹다가 임금에게 주었는

다. ‘龍陽’¹²⁾, ‘斷袖’¹³⁾ 등도 이와 마찬가지로 佞幸 신하의 전고에 따른 명칭이다.

- 男色: 동성인 남성에게 끌림을 일으키는 남성의 미색을 가리킨다. 광의적으로 남성동성애를 가리키기도 한다.

- 男寵: 남색과 마찬가지로, 남성동성애에 있어서 피동적인 역할을 하는 남성을 가리킨다.

- 男風: 남성동성애의 다른 말이다. 남성동성애의 풍속이 특히 福建省 등 중국의 남방에서 유행했기 때문에 南風이라고도 한다. 이 명칭은 남방 왕조인 남조와 남성동성애의 관계가 밀접함을 말해준다.

- 頑童: 『尚書·伊訓』에 나오는 ‘미소년을 가까이하다’(比頑童)에서 온 말로, 明代 이후로 남성동성애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 變童: 蕭綱의 시가 제목으로 언급된 미모의 젊은 남자를 가리키는데, 남조시기 남성동성애 대상자의 대표적인 명칭이다.

데도 임금에 오히려 더 좋아했으며, 당시 衛나라에는 임금 수레를 몰래 타면 刑에 처하는 법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彌子瑕는 어머니가 병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임금 수레를 몰고 궁문을 나갔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은 오히려 어머니 때문에 刑을 범한 그의 효성을 칭찬하였다고 할 정도로 군주에게 총애를 받았다.

12) 戰國시대 魏王의 총신인 龍陽君. 한번은 왕을 모시고 낚시를 갔는데, 몇 마리 잡은 뒤 龍陽君이 울기 시작했다. 왕이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처음 고기를 잡았을 때는 매우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에 잡은 고기가 많아질수록 전에 잡은 고기는 모두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의 재주와 미모 또한 아름답지 못한데도 오히려 상감마마와 함께 침소에 들 수 있습니다. 저의 封地 안에서는 임금이 되고, 궁중에서는 하인을 부릴 수 있고, 길에서는 백성들이 길을 피해 줍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미인이 너무도 많은데 마마께서 저를 총애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저들도 마마에게 총애를 받으려고 다투어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 또한 버린 물고기와 같은 처지가 될 터이니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왕은 미인을 진상하지 못하도록 명을 내렸다고 한다.

13) 董賢은 漢나라 哀帝가 총애하던 신하로서, 자가 聖卿이며, 雲陽 사람이다. 『漢書』 「佞幸傳」에 의하면, 哀帝가 그의 품행과 용모를 좋아하여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항상 함께 있었다고 한다. 한번은 낮잠을 자는데 그가 임금의 소매 한 쪽을 깔고 자고 있어서, 임금이 일어날 때 그를 깨우지 않기 위해 소매를 자르고 일어날 정도였다고 해서 생긴 전고이다.

이상에서 볼 때 현대적 남성동성애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男風이 가장 근접한 말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현대적 남성동성애가 대부분 정서적인 상호 교감 아래 이루지는 것이라면 고대 중국의 남성동성애는 주로 신체적 미에 의한 상하관계의 일방적 애정이자, 향유자가 양성애자일 확률이 높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대의 사전적 의미를 감안한다면 굳이 생소한 男風이라는 명칭보다는 남성동성애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보아 본고에서는 남성동성애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3. 남조시기 남성동성애의 유래와 성행 배경

1) 역사적 유래

동성애는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한 일종의 비정상적인 애정 형태 중의 하나다. 이러한 애정 형태가 언제부터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다. 중국의 경우, 清代 학자 紀昀의 『閱微草堂筆記』에서 “잡설에 의하면 남성동성애는 황제에게서 시작되었다.”(雜說稱變童始於黃帝)라고 하여 삼황오제의 전설시대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¹⁴⁾

이러한 전설적인 기록과는 달리 실제로 사서상의 남성동성애와 관련된 최초의 언급은 『商書』¹⁵⁾와 『逸周書』¹⁶⁾에 보인다. 후자의

14) 劉達臨·胡宏霞, 『中國性文化史』, 上海: 東方出版中心, 2007.7, 352쪽 참조.

15)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https://ctext.org/shang-shu/zh>)(『尚書·伊訓』): 감히 궁중에서 항상 춤을 추고 술과 노래에 빠지는 것, 이것을 무당의 풍속이라고 한다. 감히 재물과 여색에 탐닉하며 항상 놀이와 사냥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을 사악한 풍속이라고 한다. 감히 성현의 말씀을 욕되게 하고 충직한 도리를 거스르며 높고 덕 있는 사람을 멀리하며 미소년을 가까이하는 것, 이것을 음란한 풍속이라고 한다.(敢有恒舞于宮,

기록은 이후 劉向의 『戰國策』에도 보인다.

“(晉 獻公이) 또 虞나라를 치고 싶어 했지만 宮之奇가 있는 게 걸려 망설였다. 이에 荀息이 말했다. ‘『周書』에 “미남은 늙은 신하를 내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미남을 虞나라에 보냈으며, 임금이 宮之奇를 미워하도록 했다. 宮之奇가 간언했지만 임금이 듣지 않자 끝내 나라를 떠났다. 이에 虞나라를 쳐서 마침내 승리했다.”¹⁷⁾

이로 본다면 미남의 역할은 越 句踐이 吳 夫差에게 미인계로 보낸 西施의 역할이나 王允이 董卓에게 보낸 貂蟬의 역할, 즉 여색과 같은 남색이 분명하기에 구체적 내용을 떠나 남성동성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동성애의 기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 시기를 단정하기도 한다.

남성동성애는 인류의 천부적인 것이다. …… 중국의 남성동성애의 사정은 믿을 수 있고 증거가 있는 것으로, 春秋戰國시대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¹⁸⁾

酣歌于室, 時謂巫風. 敢有殉于貨色, 恒于遊畋, 時謂淫風. 敢有侮聖言, 逆忠直, 遠者德, 比頑童, 時謂亂風.)

16)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https://ctext.org/lost-book-of-zhou/zh>)(『逸周書·武稱解』): 임금이 총애하는 미남은 임금 주변에 노숙한 신하를 없애고, 총애하는 미녀는 간언하는 말을 없앤다. 과도한 시도는 나라를 파괴하고, 과도한 기교는 시속을 파괴하고, 과도한 음약은 정악을 파괴하고, 과도한 말은 정의를 파괴하니, 武王의 폐단이였다.(美男破老, 美女破舌, 淫圖破國, 淫巧破時, 淫樂破正, 淫言破義, 武之毀也.)

17)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https://ctext.org/zhan-guo-ce/qin-yi/zh>)(『戰國策·秦策』): (晉獻公)又欲伐虞, 而憚宮之奇存. 荀息曰, “『周書』有言, ‘美男破老.’ ”乃遣之美男, 教之惡宮之奇. 宮之奇以諫而不聽, 遂亡. 因而伐虞, 遂取之.

18) 王書奴, 『中國娼妓史』, 上海: 上海書店, 1992, 影印, 46쪽: 男色嗜好, 是人類天生的. …… 我國男色事情, 信而有徵的, 是從春秋戰國開始.

漢代의 “龍陽”, “餘桃”, “斷袖” 등의 역사적 전고는 인구에 회자되었으며, 『玉臺新詠』의 남성동성애 시가 속에 언급되는 동성애 관련 인물들은 주로 漢나라 때 군주에게 총애를 받던 신하였다. 이와 관련한 역사 자료는 『史記』와 『漢書』의 「佞幸傳」이 대표적이다.

그중 『史記』(65)의 「佞幸傳」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단지 여인만이 미색이나 교태로 총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선비나 관리들 또한 그렇다. 옛날에도 미색으로 군주의 총애를 얻어 영달한 자가 많았다. 漢나라를 일으킨 高祖는 사납고 오만했으나 籍孺를 총애했다. 그 뒤를 이은 惠帝도 閼孺를 총애했다. 이 두 사람은 재주나 능력으로써가 아니라 한낱 미모와 아첨으로 총애를 얻어 존귀한 신분으로 황제와 기거를 같이 했다. …… 그래서 惠帝 때 郎이나 侍中은 모두 駿驥의 깃으로 장식한 관을 쓰고 자개를 박은 허리띠에 얼굴은 脂粉을 발라 모두 閼이나 籍의 무리를 본받았다.¹⁹⁾

여기에서 寵臣으로 두 차례 언급된 사람인 籍과 閼에 붙은 접미사 ‘孺’는 후대의 ‘變童’ 즉 미소년이란 뜻으로 보인다. 이후 文帝의 종기를 빨 정도로 황제와 친하게 지냈던 鄧通,²⁰⁾ 武帝가 총애하며 항상 기거를 함께 했던 韓嫣²¹⁾과 李延年²²⁾의 행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漢興, 鄧通, 韓嫣, 李延年, 石賢, 淳於長, 董賢 등의 행적에

19) 『史記·佞幸傳』(卷125). 上海書店編, 『二十五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348쪽: 非獨女以色媚, 而士宦亦有之. 昔以色幸者多矣. 至漢興, 高祖至暴抗也, 然籍孺以佞幸, 孝惠時有閼孺. 此兩人非有材能, 徒以婉佞貴幸, 與上臥起. …… 故孝惠時郎侍中皆冠駿驥, 貝帶, 傅脂粉, 化閼籍之屬也.

20) 文帝는 때때로 鄧通의 집에 놀이를 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鄧通에게는 별다른 재능이 없었으며 선비를 천거할 능력도 없었다. 오로지 스스로 근신하여 자신의 몸으로 황제에게 아첨할 뿐이었다.

21) 武帝가 膠東王의 신분이었을 때 韓嫣과 황제는 학문을 배우면서 서로 친애하게 되었다. 이어서 태자로 책봉되자 韓嫣과 더욱 친밀하게 지냈다.

22) 황제와 기거를 같이할 정도로 귀한 신분이 된 李延年是 韓嫣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대해 기록하고 있는 『漢書·佞幸傳』의 이들에 대한 평론을 보면 다음과 같다.

평하기를, 미색으로 마음을 기울게 하는 것으로는 비단 여자의 덕성뿐만이 아니라 대체로 남색도 있다. 高祖의 남총 籍孺, 惠帝의 남총 閼孺, 文帝의 남총 鄧通, 武帝의 남총 韓嫣 등 하나가 아니며, 董賢에 대한 총애는 더욱 대단하여 부자가 모두 公卿이 되었으니, 가히 人臣으로서는 둘도 없이 귀하다고 하겠다.²³⁾

『史記』나 『漢書』 등 사서에서 말하는 佞幸이란 佞[色, 또는 色과 才]으로 幸[군왕의 총애]을 입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 미색과 재주로 군주를 기쁘게 하여 총애를 받던 자를 말한다. 그들은 군신 관계에서 ‘임금과 함께 자고 일어나며’(與上臥起),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항상 임금과 함께했다는 사실로 보아, 임금의 남색 대상이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漢代까지의 佞幸 신하 즉, ‘男寵’이 단지 군왕이나 귀족의 특수한 기형적 기호였다면, 魏晉南北朝에 이르면 이러한 풍속은 점차 보편화 되어 ‘變童’에 대한 애호가 제왕뿐만 아니라 사대부 및 사회 전체에 보편화되게 되었다.²⁴⁾

남조사회는 비록 난세기였지만 북방에 비해 안정적이었으며 그에 따라 경제 역시 발전하였다.²⁵⁾ 『玉臺新詠』이 편찬된 시대 배경인

23) 『漢書·佞幸傳』(卷93). 上海書店編, 앞의 책, 347쪽(총711쪽): 贊曰, 柔曼之傾意, 非獨女德, 蓋亦有男色焉. 觀籍、閼、鄧、韓之徒非一, 而董賢之寵尤盛, 父子並爲公卿, 可謂貴重人臣無二矣.

24) 『晉書·五行志』(卷29). 上海書店編, 앞의 책, 105쪽(총1349쪽): “咸寧(275-280), 太康(280-289) 이후로 남총 풍속이 크게 유행하여 여색보다 더 심했다. 사대부들 중 이를 숭상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세상 사람들이 서로 본받았다. 간혹 부부 관계가 단절되거나, 많은 부부들이 오랫동안 떨어져 사는 경우까지 있었다.”(自咸寧太康之後, 男寵大興, 甚於女色, 士大夫莫不尚之, 天下相倣效, 或至夫婦離絕, 多生怨曠.)

25) 許輝·蔣福亞, 『六朝經濟史』, 江蘇省: 江蘇古籍出版社, 1993.7, 7-9쪽 참조.

梁武帝 때(502-549재위)는 남조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기였으며, 군신이 함께 어느 조대 못지않게 활발하게 시가를 창작 하던 문화적 토양을 갖추고 있었다. 이로 인해 왕실과 귀족사회는 정치의 안정, 경제의 발전, 문화의 융성 등을 기반으로 삼아 탐미적 쾌락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함께 남성동성애는 마침내 시가에까지 등장할 정도로 성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심미적 배경

문학은 시대와 사회적 산물이자 그 시대와 사회의 심미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玉臺新詠』의 작품 역시 당시인의 심미의식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 속의 남성동성애 시가의 탄생과 시가집에 수록될 수 있었던 당시의 심미적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魏晉南北朝는 대혼란의 난세기로서, 이로 말미암아 치세기 爲政의 사상적 기반이던 유가에 바탕한 봉건예교가 쇠미하면서 전통 윤리도덕의 구속에서 크게 해방된 시기였다. 유가에 기반을 둔 漢代와는 다른 魏晉南北朝의 사상은 魏晉시기에 이미 그 단초를 마련했었다.

魏晉시기는 중국사상사에 있어서 제2의 각성시기였는데, 그 특징은 봉건윤리의 속박과 西漢 이래 미신과 참위 통치에 대한 반란이었다. 예법을 경시하며 몸 바깥에서 정신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시대적 풍조였다. 유가 예법의 쇠미와 현학의 흥기는 객관적으로 인간의 개성에 대한 해방으로서, 얼마간은 서방의 중세기 신학의 금고를 깨트린 인문주의의 부흥 상황과 유사하다.²⁶⁾

魏晉南北朝 시기의 사상적 특징은 유가의 쇠미와 현학 및 노장사상의 흥기를 들 수 있다. 미학적으로도 심미의식상 孟子的 ‘浩然之氣’와 같은 유가의 陽剛美 대신 도가의 陰柔美가²⁷⁾ 주류를 차지했을 것으

26) 敏澤, 『中國美學思想史』(卷1), 濟南: 齊魯書社出版社, 1987, 507-508쪽 참조.

로 볼 수 있다. 치세기의 기반 사상이 위정의 주체인 남성 위주의 유가라면, 난세기에 성행한 사상은 관점에 따라서는 유가와 상대적인 여성 위주의 도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심미적으로 볼 때 남성 위주의 유가는 陽剛을 중시하는데 반해 여성 위주의 도가는 陰柔를 중시한다. 실제로 『老子』 81편 곳곳에서 이러한 여성성과 그 특질인 음유를 중시하는 글이 보인다.²⁸⁾

이처럼 유가사상의 쇠퇴와 도가사상의 흥기는 성적으로는 규범에서 해방되어 다양한 형태의 애정과 유희가 나타나게 했으며, 성적 심미에 있어서는 남성의 여성화를 불러오게 하였다.

魏晉시기 남자들은 음유 속성의 여성미가 미남의 표준이 되었다. 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魏晉南北朝시대의 남성들은 분과 거울이 손에서 떠나지 않았으며, 몇 걸음 가다가 거울을 비춰보고 화장을 고칠 정도였으며, 여자옷 입는 것도 유행했다. 심지어 썬나라 때 尙書였던 何晏조차도 여자옷 입는 것을 좋아했을 정도라고 한다.²⁹⁾ 여성의 특질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과 관련하여 漢代의 남성 역시 분을 바르는 풍속이 있었으며,³⁰⁾ 魏晉 때에 이르면 이러한 풍속이 더욱 심해진다.

27)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 “양강과 음유에서 양강은 양강미로서, 일종의 웅장하고 굳센 예술 풍격을 가리키며, 음유는 음유미로서 온화하며 그윽한 예술풍격을 가리킨다.”(陽剛陰柔是陽剛, 即陽剛之美, 指一種雄偉勁直的藝術風格. 陰柔, 即陰柔之美, 指一種徐婉幽遠的藝術風格.) 또 『易·說卦』에 “(卦는) 음과 양으로 구분되어 번갈며 유와 강을 운용하니, 「易」의 여섯 卦가 자리를 잡아 무늬를 만든다.”(分陰分陽, 迭用柔剛, 故「易」六位而成章.)이라 했는데, 高亨의 注에 “六爻에는 음유가 있고 양강이 있어, 양자가 번갈며 운용되어 서로 뒤섞여 무늬를 이룬다.”(六爻有陰柔, 有陽剛, 兩者迭用, 交錯成文.)라고 했다.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https://ctext.org/book-of-changes/shuo-gua/zh>)

28) “天下莫柔於水”(78장), “上德若谷”(41장), “曲則全”(58장), “堅強處下, 幼弱處上.”(76장), “柔之勝剛也, 弱之勝強也.”(78장), “弱者, 道之用.”(40장) 등에처럼 약한 것, 여자, 낮은 것 등을 도의 근원으로 내세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9) 『晉書·五行志』(卷27, 上海書店, 앞의 책, 54쪽(총1338쪽): 상서 何晏은 여자 옷을 즐겨 입었는데, 傅玄이 말하기를 ‘이것은 불길한 복장이다.’라고 했다.(尙書何晏, 好服婦人之服. 傅玄曰, ‘此妖服也.’)

이러한 여성화된 인물에 대한 예는 당시 인재 선발을 위한 九品中正制의 영향으로 성행하던 인물들에 대한 품평 및 그에 대한 기록으로 볼 수 있는 『世說新語』 등의 책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世說新語』 중의 「方正」 편은 대부분이 인물에 대한 품평이며, 특히 「容止」 편은 남성의 인물과 외모 등에 대한 예 39편의 문장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심미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何平叔(何晏)은 아름다운 용모에 얼굴색이 희었다. 魏 文帝는 그가 분을 발라 그런 것으로 여겨 더운 여름에 그에게 뜨거운 국과 떡을 주어 보았다. 그가 먹고 난 후에 얼굴에 온통 땀이 흘렀는데 붉은 색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니 더욱 희었다.³¹⁾

衛玠가 豫章郡에서 南京으로 내려오자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그의 명성을 듣고, 담장 같이 그를 에워싸고 구경했다. 衛玠는 일찍이 허약하고 병이 있어서 체력이 피로를 감당하지 못하여 마침내 그것이 병이 되어 죽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두고 衛玠를 구경하다가 죽었다라고 했다.³²⁾

남자가 여자처럼 香囊을 차는 경우도 있는데 다음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謝暹이 젊었을 때 보랏빛 비단 향낭을 차고 이를 늘어뜨려 손등까지 덮이게 한 채 다니기를 좋아했다. 그런데 아버지 太傅는 이를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나 謝暹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자 거짓으로 그와 도박을 하여 이를 따서 즉시 태워버렸

30) 주 19) 참조. 『後漢書·李固傳』: 李固는 유독 이민족의 분으로 얼굴을 꾸미고, 머리를 빗으며 교태를 부렸다.(固獨胡粉飾貌, 搔頭弄姿.) 上海書店, 앞의 책, 225쪽(총985쪽).

31) 劉義慶, 徐震堦 校箋, 『世說新語校箋』, 臺灣: 文史哲出版社, 1985, 333쪽: 何平叔美姿儀, 面至白. 魏明帝疑其傅粉. 正夏月, 與熱湯餅. 既噉, 大汗出, 以朱衣自拭, 色轉皎然.

32) 劉義慶, 徐震堦 校箋, 앞의 책, 337-338쪽: 衛玠從豫章至下都, 人久聞其名, 觀者如堵牆. 玠先有羸疾, 體不堪勞, 遂成病而死. 時人謂看殺衛玠.

다.33)

남조시기의 전반적인 남성의 여성화 경향에 대해서는 『顏氏家訓』에 잘 나타나 있는데, 먼저 梁나라 때의 귀족자제들의 여성적 모습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梁나라 전성시대에 귀족들의 벼슬 않고 놀고먹는 자제들 대부분은 학문적 소양이 없었다. …… 옷에는 향을 넣고, 얼굴은 면도를 하고, 분과 연지로 화장을 했다. 밖에 나갈 때는 넓은 장막을 친 폭신한 마차를 탔고, 길을 걸을 때는 굽 높은 나막신을 신었다. 집안에서는 바둑판 무늬의 넓고 두툼한 요를 깔고 알록달록한 실로 장식한 방석에 기대어서 취미로 즐기는 물건들을 곁에 늘어놓았다.³⁴⁾

귀족사회인 梁나라 때의 사대부들의 나약한 음유적 특성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梁나라 때의 사대부들이라면 누구나 넓고 큰 도포차림에 헐렁한 허리띠를 차고 큰 관에 굽 높은 나막신을 신었다.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수레나 가마를 탔으며, 집에서는 하인의 시중을 받았다. …… 侯景의 난이 일어나자 사대부들은 피부와 뼈가 약하여 걷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체력과 기력이 모두 허약하여 추위와 더위도 견디지 못했다. 그래서 순식간에 죽어나간 자들은 대부분 그들이었다. 建康令 王復은 원래 타고난 성품이 온화하고 고상하여 한 번도 말을 타 본 일이 없는 사람이었다. 말이 히히힝거리며 박차고 뛰어오르면 떨며 무서워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마침내 사람들에게 ‘저것이 바로 호랑이로구나! 어째서 말이라고 부른

33) 劉義慶, 徐震堦 校箋, 앞의 책, 461쪽: 謝暹年少時, 好箸紫羅香囊, 垂覆手. 太傅患之, 而不欲傷其意, 乃譎與賭, 得即燒之. (「假譎」)

34) 顏之推, 吳玉琦·王秀霞 註譯, 『顏氏家訓譯註』,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8, 131쪽: 梁朝全盛之時, 貴遊子弟, 多無學術. …… 無不熏衣剃面, 傅粉施朱, 駕長檐車, 跟高齒履, 坐棋子方褥, 憑斑絲隱囊, 列器玩於左右.(「勉學」)

단 말이나?’라고 했다. 당시의 풍속이 이 정도였었다.³⁵⁾

魏晉南北朝시기 남색의 흥기 요인은 난세기로 말미암은 사상적 측면에서의 유가사상의 쇠퇴와 도가사상[남성적 양강미보다 여성적 음유미를 중시]의 흥기 및 사조적 측면에서의 유태주의[남성의 실용적인 가치, 즉 전쟁의 영웅 등의 형상보다 심미적 가치, 즉 미남을 더 선호]의 흥기를 들 수 있다. 이는 또한 중국 역사상 남성동성애가 가장 만연하던 시기였던 明清시기의 심미의식이 『紅樓夢』의 賈寶玉으로 형상화된 여성화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점³⁶⁾에서도 양자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다.

아름다운 남성은 분명 자연속의 일부일 수 있으며, 그래서 그것은 아름다운 자연처럼 향유자 등 기타 요소와 관계없이 아름답다는 독립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남성은 사람이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속에서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렇다고 할 때 어떤 사회이며, 사회 속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아름다운 남성애에 대한 인식과 수용 또한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남성동성애의 대상인 ‘變童’은 귀족사회, 향락사회, 유가의 쇠퇴와 함께 음유미를 특색으로 하는 남조사회의 심미적 기준에 부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35) 顏之推, 吳玉琦·王秀霞 註譯, 앞의 책, 239-240쪽: 梁世士大夫, 皆尚褒衣博帶, 大冠高履, 出則車輿, 入則扶持, ……及侯景之亂, 肤脆骨柔, 不堪行步, 體羸氣弱, 不耐寒暑, 坐死倉猝者, 往往而然. 建康令王復, 性既儒雅, 未嘗乘騎, 見馬嘶責陸梁. 莫不震懼, 乃謂人曰, “正是虎, 何故名爲馬乎?” 其風俗至此.)(「涉務」)

36) 吳存存, 이월영 역, 『남자, 남자를 사랑하다』, 서울: 학교재, 2009.5, 269쪽.

4. 『玉臺新詠』 중의 남성동성애 시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멀게는 삼황오제의 전설시기부터, 적어도 商나라, 또는 이후 春秋戰國시대로부터 출현하였던 남성동성애에 대한 기록이 魏晉南北朝에 이르면 시가에도 반영되게 된다. 우선 『玉臺新詠』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詩經』 시에 대한 역대 학자들의 해석만큼이나 동성애의 역사를 애매한 역사로 간주한 張在舟³⁷⁾는 先秦시기 『詩經』 속의 많은 작품들을 동성애를 노래한 작품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면 미남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鄭風·山有扶蘇」에 대해서 그 주체가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면 남성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唐 孔穎達의 『毛詩正義』에서 이 시에 대해서 말한 ‘外事’를 들어 ‘外寵’ 즉 남색과 같다고 보아 남성동성애를 노래한 시라고 보았다. 이 밖에도 「狡童」, 「褰裳」, 「野有蔓草」, 「候人」, 「遵大路」 등도 나름대로의 典據를 들면서 모두 남성동성애를 반영한 작품이라고 했다.³⁸⁾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이러한 시들을 남성동성애의 작품으로 간주하기에는 지나친 건강부회함이 있으며, 시의 해석상의 다양함을 열어준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억측에 의한 동성애 관련 시가들을 제외하면 바로 『玉臺新詠』이 최초이자 집중적으로 그러한 시가를 수록한 시가집인 셈이 된다. 작품을 시대순으로 언급하면, 漢 樂府 「越人歌」(9권), 西晉 阮籍의 「詠懷詩」(昔日繁華子)(2권), 梁代 吳均의 「詠少年」(6권), 劉

37) 張在舟, 앞의 책, 24-25쪽: “중국 고대 동성애 상황의 특징은 사회가 동성애에 대해 비교적 고정적으로 중립적인 반대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고대의 男風은 대체로 세상 사람들의 의혹의 눈길 속에서 일종의 애매한 상태로 사회 속에 존재했다.”

38) 張在舟, 앞의 책, 75-83쪽 참조.

孝綽의 「詠小兒採菱」(10권), 劉遵의 「繁華應令」(8권), 蕭綱의 「變童」(7권)과 「詠武陵王左右伍髡傳柸」(10권), 劉泓의 「詠繁華」(10권) 등이다.³⁹⁾ 본고에서는 『玉臺新詠』의 편찬에 주도적 역할을 한 蕭綱과 동시대, 즉 梁代의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품의 수록에 대한 암시는 편찬자 徐陵이 쓴 이 시가집의 서문에 보인다.

또한 산꼭대기의 동자 신선이 있어, 魏나라 임금에게 환약을 나누어주는 듯하고.⁴⁰⁾

비록 신선이지만 미성년인 동자가 임금에게 신선이 될 수 있는 환약을 준다는 것은 중국의 고대 남성동성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군주와 ‘연동’ 사이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작품 중 먼저 阮籍(210~263)의 작품을 보기로 한다. 그의 「詠懷詩」 82수 중 아래의 제12수는 단지 남성동성애를 반영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이 시가집에 수록될 수 있었다.

옛날 젊고 아름답던 남자/安陵君과 龍陽君은/아리따운 복숭아꽃
자두꽃/반짝반짝 화사한 빛이 났었지/눈부신 용모는 90일 봄날
같았고/경쇠처럼 굽힌 몸에 예의범절 추상 같았지/홀겨볼 땐 매
혹적인 자태를 지었고/말과 웃음엔 향기가 뿜어났었지/손잡고 즐
거운 사랑 나누며/밤마다 한 이불을 덮었지/소원은 한 쌍의 새 되
어서/날개 서로 붙인 채 날아오르는 것/단청처럼 뚜렷한 밝은 그
맹세/영원토록 서로 잊지 말자 하였지⁴¹⁾

39) 본고의 원문 텍스트는 ‘徐陵 編, 穆克宏 點校, 『玉臺新詠箋注』, 北京: 中華書局, 1992’이며, 예시의 번역은 이를 저본으로 삼은 ‘권혁석 역, 『옥대신영』, 서울: 소명, 2006’의 번역을 그대로 따르거나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이다.

40) 亦有嶺上仙童, 分丸魏帝.

41) 昔日繁華子, 安陵與龍陽. 夭夭桃李花, 灼灼有輝光. 悅懌若九春, 磬折似秋霜. 流眄發媚姿, 言笑吐芬芳. 攜手等歡愛, 宿昔同衾裳. 願爲雙飛鳥, 比翼共翱翔. 丹青著明誓, 永世不相忘.

시는 옛날 두 총신에 대해, 그들이 미색으로 군왕에게 총애를 받은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작가가 처했던 시대상을 풍자한 것이다. 즉 미모로써 임금에게 총애를 받는 신하조차도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건만 魏나라의 후은을 입었던 司馬昭가 오히려 반역한다는 것을 풍자하였다. 따라서 주제로 볼 때 이 작품은 남성동성애를 반영한 작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본고에서 예로 든 것은 작품의 주제와 무관하게, 작가가 시에 인용한 戰國시대의 두 미남자 安陵君과 龍陽君이 바로 그들 군주와의 동성애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다음은 남성동성애에 있어서 여성역인 남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린 蕭綱(503-551)의 작품 「變童」을 보기로 한다. 梁武帝 때 昭明太子(501-531) 사후 태자를 계승했던 蕭綱이 『玉臺新詠』 편찬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임을 감안한다면 이 작품은 『玉臺新詠』 속의 기타 남성동성애를 반영한 일군의 시가들의 모티브 역할을 한 작품이자 대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름다운 소년의 아리따운 몸매는/董氏를 짓밟고 또 彌子瑕를 뛰어넘네/깃털 장식 휘장 안에 새벽 향기 넘쳐나고/주렴 저편에 저녁 물시계 물방울 더디 떨어지네/비취색 이불에는 원앙이 새겨져 있고/조각한 침상은 상아로 아로새겨져 있네/좋은 나이는 周小史와 같고/예쁜 용모는 아침 햇살에 비교되네/소매는 쌍벽 무늬 비단으로 재단했고/바지는 가녀린 동화로 짠다네/바지자락 손으로 잡으니 연홍색 살결 나타나고/고개 돌리니 양쪽 살쩍 비스듬히 보이네/나른한 눈동자는 이따금 미소 머금고/옥 같은 손은 문득 꽃가지를 잡아당기네/의심과 시기도 나중에 낡은 물고기 때문이 아니며/농밀한 사랑은 총애 식기 전에 탄 수레와 비슷하네/燕나라 여인 질투하게 할 만하고/더욱이 鄭나라 여인들 탄식하게 하네⁴²⁾

42) 變童嬌麗質, 踐董復超瑕. 羽帳晨香滿, 珠簾夕漏賒. 翠被含鴛色, 雕牀鏤象牙. 妙年同小史, 姝貌比朝霞. 袖裁連璧錦, 牋織細檀花. 攬袴輕紅出, 回頭雙鬢斜. 嬾眼時含笑, 玉手乍攀花. 懷

이 작품은 남성동성애의 대상인 미소년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 가지 관련된 전고를 통해 묘사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동성애 쌍방의 애정 심리 묘사가 아니라, 삼인칭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영물에만 머물고 말았다는 것이다. 작품에 쓰인 동성애 관련 전고를 보면, 董偃 또는 董賢, 彌子瑕, 周小史, 龍陽君 등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둘째 구의 ‘董’氏는 董偃 또는 董賢으로, 두 사람 모두 漢나라 때 미모로 임금에게 총애를 받은 인물이다. 董偃은 漢武帝 때 사람으로 본래는 그 어머니와 함께 진주 파는 일을 하였는데, 13세 때 어머니를 따라 武帝의 고모 館陶공주의 집에 갔다가 그의 미모가 당시 과부로 있던 그녀의 눈에 띄어 그 집에 머물며 공부도 배우면서 총애를 받았다. 나중에 그녀를 통해 武帝에게 친거되어 역시 총애를 받았다.

둘째 구의 ‘超瑕’와 말미의 ‘前車’ 고사는 春秋시대 衛나라 彌子瑕를 가리키며, 일곱째 구의 ‘小史’는 西晉 때의 미남인 周小史를 가리킨다. 小史가 귀인의 곁에서 시중을 들던 동자란 의미로 보아, 周氏성을 가진 그의 시동을 말한다. 본장 마지막에 張翰의 「周小史」시를 주석으로 첨부하였다. 마지막으로 끝부분의 ‘懷猜非後鈞’ 구는 앞의 阮籍의 시에 언급된 龍陽君을 가리킨다.

고대 중국의 남성동성애에 있어서 동성애 향유자와 대상자 사이에는 지배와 피지배라는 계층상의 차이도 있지만, 이 작품에서처럼 남성동성애 대상자의 대명사로 쓰이는 ‘變童’이란 어휘에서 보듯이 대상자의 연령은 대부분 성년이 되기 전의 소년이다. 연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모를 중시하는 여성과는 달리 연령이다. 여성은 연령과 관계없이 여성성을 보유하게 마련이지만 연동의 경우, 준여성적 성에서 여성성의 상실은 곧 연동의 생명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동의 연령은 대체로 남성의 성징이 왕성하게 나타나기 전으로,

猜非後鈞, 密愛似前車. 足使燕姬妬, 彌令鄭女嗟.

대략 17세 전 정도라고 짐작할 수 있다.

중국 고대 남성동성애의 현대 남성동성애와의 차이는 상호의 신분, 정신적 애정의 존재 여부, 일방적과 쌍방적 등인데, 정신적 애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하 관계에서 오는 일방적 기호와 유희에 머물다 보니, 이 시처럼 주로 남색 대상의 외형미 묘사에만 치중하게 되었다.

다음은 이 시에 응대하여 지은 蕭綱의 신하 劉遵(488-535)⁴³⁾의 작품 「繁華應令」이다.

사랑스런 周 소동/미소 지으며 난초꽃을 따네/고운 피부는 분보다 더 하얗고/매끄럽고 고운 뺨은 복사꽃처럼 붉다네/雕陵 땅 아래서 화살 끼고 사냥하며/연잎 동쪽에서 낚싯대 드리우네/손목 움직이니 사향이 훑날리며/옷이 가벼우니 부드러운 바람 따라 일렁이네/운 좋게도 침전의 먼지 터는 사람으로 뿔히어/그림으로 꾸며진 방 안에서 임금을 모시게 되었네/황금빛 병풍은 비취색 이불을 가리고/남빛 보자기는 향기로운 옷상자를 덮고 있네/본래 경박함을 싫어할 줄 알기에/말을 머금은 채 마음 전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네/소매를 자르는 은총 무겁고/먹다 남은 복숭아를 드리는 사랑 아직 끝나지 않았네/아미 눈썹 미인이 어찌 질투할 필요가 있으랴/새로 화장한 여인이 차례로 궁중에 들어오는데⁴⁴⁾

작품 제목의 ‘繁華’는 ‘繁華子’와 같다. 즉 용모가 아름다운 젊은 남자를 말한다. ‘應令’은 태자의 명령에 응하여 지은 작품이란 뜻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蕭綱의 「變童」 시에 응대하여 지은 시다. 첫구의 ‘周小童’은 西晉 때의 미소년이었던 周小史를 가리킨다. ‘剪袖’의 전고

43) 劉遵의 벼슬을 보면 처음에 著作郎, 太子舍人 등을 지냈으며, 蕭綱의 총애를 받아 晉安王의 記室諮議參軍과 帶卽縣令을 역임했다가 蕭綱이 태자가 된 후에는 中庶子에 임명되었다. 蕭綱이 그를 위해 문집을 편찬했다고 할 정도로 蕭綱의 측근 신하로서 蕭綱과 함께 蕭綱의 ‘放蕩’ 문학관을 창작으로 구현한 시인이다.

44) 可憐周小童, 微笑摘蘭叢. 鮮膚勝粉白, 慢臉若桃紅. 挾彈雕陵下, 垂釣蓮葉東. 腕動飄香麝, 衣輕任好風. 幸承拂枕選, 得奉畫堂中. 金屏障翠被, 藍氍覆薰籠. 本欲傷輕薄, 含辭羞自通. 剪袖恩雖重, 殘桃愛未終. 蛾眉詎須嫉? 新妝遞入宮.

는 漢 哀帝 때 미모로 임금에게 총애를 받은 董賢을 가리킨다.

이 시는 태자 蕭綱의 명에 따라 지은 시로, 작품의 내용은 蕭綱의 원작과 거의 같으며, 궁중의 미소년의 용모와 그에 대한 임금의 총애를 노래하고 있다. 작품의 주인공은 미모로 인하여 임금의 침전 시중을 들 정도로 총애를 받는 사람인데, 이는 후궁이 임금에게 총애 받는 과정과 같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말미에서 그가 충분히 후궁들의 질투를 살 만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남조시기 궁중의 연동은 그 각색이 후궁과 같았으며, 후궁이 임금의 이성애, 즉 여색의 대상이 되듯 연동은 임금의 동성애, 즉 남색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처럼 임금은 연동뿐만 아니라 미인도 여전히 가까이했다는 사실로, 고대 동성애의 향유자가 양성애자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이 작품처럼 군신 간, 또는 문인들 간의 수창 작품은 진실한 감정이 결여된 창작을 위한 창작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작품들은 특히 齊梁代의 시가에 많으며, 그중에서도 梁代의 宮體詩에 많이 보인다. 이러한 작품들은 문학성으로 볼 때 그다지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 하지만 모방을 통한 창작이란 시가의 문인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시가를 위한 시가 창작이라는 유희주의 사조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당시 시단의 주류였던 이러한 시가들이 당시 왕실과 사대부, 즉 귀족들의 사회상을 필연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남조시기 후반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蕭綱의 시에서부터 그에 응대한 이러한 시는 당시 남성동성애가 시가 속에 나타난 것이 결코 개인의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 당시의 문인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하나의 중요한 사회 풍조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다음은 劉泓의 「詠繁華」이다.

사랑스런 모습 출중하다 할 만하고/맑고 밝은 살결 환하기 그지 없네/교태어린 아름다운 두 눈을 뜨고/감미로운 목소리로 이야기

를 하네⁴⁵⁾

작가 劉泓은 梁代 사람으로, 행적 및 생평이 전해오지 않는다. 다만 이 시를 통해 蕭綱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문인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시중을 드는 미소년의 미모를 노래한 시다. 이 작품 역시 梁代 시단의 남성동성애를 반영한 시가 창작의 군체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술자리에서의 기녀 역할을 담당하던 미소년을 묘사한 蕭綱의 「詠武陵王左右伍髡傳杯」 시를 보기로 하겠다.

정수리 나뉜 것은 두 개의 쪽과 같고/비녀가 길어 없은머리 모양
나네/잔 잡고 돌릴 듯하다가/잔에 술이 남아 있는 것 같아 다시
그대로 두네⁴⁶⁾

‘武陵王’은 梁武帝 蕭衍의 제8자인 蕭紀를 가리킨다. ‘伍髡’는 시동의 이름이며, ‘傳杯’는 술자리에서 잔을 돌리며 술을 권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시는 작가의 동생이기도 한 武陵王의 시중을 드는 伍髡라는 미소년이 술자리에서 손님들에게 술잔을 돌리는 모습을 노래한 것이다. 특이한 제재이지만 이처럼 시가에 반영될 정도였다면 당시 남조 귀족사회에서 미소년이 기녀와 같이 주연을 도우는 역할도 보편적으로 행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나아가 기녀가 남성의 성애의 대상이기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미소년인 이들 역시 같은 역할을 담당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이어서 吳均(469-520)⁴⁷⁾의 작품 「詠少年」을 보기로 한다.

45) 可憐宜出衆, 的的最分明. 秀媚開雙眼, 風流著語聲.

46) 頂分如兩髻, 簪長驗上頭. 捉杯如欲轉, 疑殘已復留.

47) 작가 吳均은 글재주가 뛰어나 일찍이 沈約이 그의 글을 칭찬했으며, 梁武帝 天監 초에 吳興刺史 柳惲이 그를 불러 主簿에 임명하고, 매일 같이 함께 시를 지었다. 후에 柳惲이 그를 臨川靖惠王 蕭宏에게 추천하였고, 靖惠王은 다시 武帝 앞에서 그를 칭찬하자,

董生은 오직 애교를 띤 미소를 짓고/子都는 참으로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네/한 마디 말을 백만 냥에 사고/천금으로 사서 함께 하고자 하네/들쭉날쭉 노랑어리연꽃을 말하지 않고/누가 아리따운 숙녀를 이야기하라/그대여 수놓인 이불 가지고/越나라 사람에게 와서 자기를⁴⁸⁾

‘少年’은 젊은 남자, 여기서는 미소년을 뜻한다. 이 작품은 미소년에 대한 총애를 노래한 작품이다. ‘董生’은 董偃 또는 董賢을 가리킨다. ‘子都’는 春秋시기 鄭나라 미남이다. 마지막 두 구는 楚나라 왕자인 鄂君과 越나라 뱃사공의 사랑을 노래한 제9권의 「越人歌」⁴⁹⁾의 내용을 의미한다. 비록 「越人歌」에서 越人の 성별이 모호하여 남성동성애 작품으로 간주하기 어렵기는 하지만,⁵⁰⁾ 吳均의 이 작품에서 남성동성애의 대표적인 전고인 董偃 등과 함께 언급되었다는 점은 적어도 梁代 문인들 사이에서는 「越人歌」가 남성동성애를 반영한 시가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吳均의 작품은 물론, 「越人歌」 역시 남성동성애를 반영한 시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武帝가 즉시 그를 불러 들어 시를 짓게 한 후 그 뛰어난을 칭찬하였으며, 관직이 奉朝請에 이르렀던 남조 梁代 시단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 48) 董生惟巧笑, 子都信美目。百萬市一言, 千金買相逐。不道參差菜, 誰論窈窕淑? 願君奉繡被, 來就越人宿。
- 49) 오늘 밤은 어떤 밤인가/배를 강 중류로 저어가네/오늘은 어떤 날인가/왕자님과 함께 배를 탄 날/내 모습 부끄럽지만 호감을 얻었으니/망신스러움도 꺼리지 않는다네/굳건한 내 마음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은/왕자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네/산에 나무가 있고 나무엔 가지가 있듯이/속으로 당신을 좋아한다는 걸 당신은 모르시겠지(今夕何夕兮, 牽舟中流。今日何日兮, 得與王子同舟! 蒙羞被好兮, 不訾詬恥。心幾頑而不絕兮, 得知王子。山有木兮木有枝, 心悅君兮君不知!) 작품에 병기된 서문은 다음과 같다. “楚나라 왕자 鄂君 子脩가 푸른 새가 새겨진 배를 탔는데 배의 지붕은 비취새 깃털로 장식되어 있었다. 사공은 越나라 사람으로 그를 좋아해서 노를 저으며 越나라 노래를 불러 鄂君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鄂君은 기뻐하면서 수놓인 이불을 가져다 그에게 덮어 주었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楚鄂君子脩者, 乘青翰之舟, 張翠羽之蓋。榜棹越人悅之, 權獻而越歌, 以感鄂君, 歡然舉繡被而覆之。其辭曰。)
- 50) 「越人歌」의 ‘越人’의 성별의 모호성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성별이 모호한 작품 또한 동성애를 반영한 시가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何水英, 앞의 책, 61쪽.

다음은 梁代의 대표적 시인인 劉孝綽(481-539)⁵¹⁾의 「詠小兒採菱」이다.

마름 따는 것은 녹두 따는 것이 아닌데/해가 저무니 그런 대로 작
은 배에 가득하네/머뭇거리며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건/혹 먹다
가 드린 복숭아에 비교될까 두려워서라네⁵²⁾

이 시는 표면적인 내용으로 보아서는 동성애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작품이지만, 아이와 주인이란 구도와 마지막 구의 ‘殘桃’라는 시어로 인해 동성애 시가로 볼 수 있다. 특히 먹다 남긴 복숭아란 의미의 ‘殘桃’가 春秋시대 衛靈公에게 미모로써 총애를 받은 彌子瑕를 가리키며, 이러한 전고를 사용한 시가는 蕭綱의 「變童」처럼 대부분 남성동성애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의의는 남조시대 동성애가 군신 간뿐만 아니라 귀족 주인과 그 시동 사이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이상의 『玉臺新詠』의 작품 외에도 『玉臺新詠』의 동성애 반영 시가들 속에 미소년의 대명사로 언급되고 있는 周小史를 노래한 西晉 張翰의 사언시 「周小史」가 있는데,⁵³⁾ 이 작품은 후대 가탁의 의심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阮籍의 「詠懷詩」까지 수록할 정도로 동성애를 반영한 시가를 전면적으로 수집, 수록한 『玉臺新詠』에 이

51) 劉孝綽 역시 梁代 문단의 중요한 시인으로, 武帝 天監 초에 著作佐郎이 되었으며, 나중에 秘書丞에 올랐으며, 到洽 등과 함께 昭明太子의 太子僕이 되었다.

52) 採菱非採菜, 日暮且盈舸. 峙擘未敢進, 畏欲比殘桃.

53) 遼欽立 輯校, 『先秦漢魏晉南北朝詩』, 北京: 中華書局, 1983, 737쪽: 날씬한 주생/아름다운 어린아이/나이는 열다섯/동쪽에 떠오르는 해 같네/향기로운 피부는 부드럽고 매끄러우며/하얀 살결에 붉은 빛이 감도네/동그란 뺨에 둥근 턱/연꽃 같고 부용화 같네/네 몸은 아름다운데다 네 옷도 곱네/가벼운 수레 바람 따라 가고/나는 안개는 연기처럼 흐르네/몸을 돌리니 화려하기 그지없고/돌아보는 눈매는 아리따기도 하네/은화한 얼굴에 예쁜 미소/아름다운 입에 고운 말(翩翩周生, 婉孌幼童. 年十有五, 如日在東. 香肤柔澤, 素質參紅. 團補圓頤, 菡萏芙蓉. 爾形既淑, 爾服亦鮮. 輕車隨風, 飛霧流煙. 轉側綺靡, 顧盼便妍. 和顏善笑, 美口善言.)

시와 같이 명확히 남성동성애를 노래한 시가가 수록되지 않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의 작품들을 보면 남성동성애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작품은 시대적으로 모두 南朝 梁나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분명히 梁나라 때 蕭綱의 취지 아래 徐陵에 의해 편찬된 『玉臺新詠』이란 시가집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동성애의 대상자는 ‘變童’에서처럼 대부분 미소년들이고, 그 향유자는 대부분 군주이며, 그에 따라 향유 공간 또한 궁중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미소년에 대한 묘사가 여성미에 대한 찬미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작품 속의 연동이 임금에게 있어서는 후궁, 술자리에서는 기녀와 같은 각색이었기 때문에 임금의 후궁에 대한 이성애, 술자리에서의 기녀에 대한 이성애와 같은 남성의 동성애 대상자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종합하면 남조시기 남성동성애 시가는 梁나라 궁중, 그중에서도 태자 蕭綱을 중심으로 한 宮體詩 작가들에 의해 창작되었으며, 『玉臺新詠』을 통해 후대에 전해질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梁나라 태자 蕭綱의 취지에 따라 편찬된 『玉臺新詠』에는 남조시기 특히 梁代 蕭綱을 비롯하여 그의 신하들의 남성동성애 시가가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는 남성동성애가 적어도 당시 왕실 및 귀족사대부들에게는 금기시되던 기형적인 애정 형태가 아니라, 이성애처럼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애정의 한 형태였음을 말한다.

남성동성애를 노래한 시가가 여성관련 시가집인 『玉臺新詠』 속

에 수록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남색이 남성의 애정 대상으로서의 여색과 다르지 않음을 말해준다. 또한 『玉臺新詠』의 남성동성애 시가는 그동안 모호한 표현에 머물던 남성동성애 문학이 정통문학인 문인시가 속으로 진입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玉臺新詠』 중의 남성동성애 시가들을 통해 고대 중국의 남성동성애의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색의 향유자와 제공자의 신분의 불평등함 및 애정의 일방향성을 들 수 있다. 쌍방의 관계는 주로 군왕과 신하 또는 시동, 귀족 주인과 시동의 관계인데, 이러한 신분상의 불평등한 관계에서는 현대적 의미의 동성 간의 평등성과 진정한 애정을 공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작품들이 대부분 애정의 표현보다 미소년에 대한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데 그치게 되었다.

둘째, 남색의 향유자는 현대적 의미의 동성애자가 아니라 대부분 양성애자로 추정된다. 즉 군왕과 사대부 남성들은 대부분 그 지위로 인하여 후비나 첩, 기녀들을 대상으로 여색을 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남성동성애가 실제로든 작품으로든 금기시 되지 않았다. 남성동성애가 문인시가 속에 등장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이에 대한 찬미를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는 동성애 역사의 출발부터 향유자가 군왕이나 사대부 귀족 등 지배계층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서 중국의 고대사회가 남성가부장 중심의 남존여비 사회였다는 것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중국에서 사대부 남성은 결혼한 이후에도 기녀, 첩 등의 여색을 밝히는 것이 죄악시되지 않았으며, 나아가 그들 남성에게 있어서 남색은 곧 여색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봉건사회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비판과 부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남조시기 특히梁나라 왕실을 중심으로 남성동성애를 반

영한 작품들이 집중적으로 창작되었고, 그 시가들이 『玉臺新詠』이란 시선집에 수록된 원인 및 의의를 들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梁나라 때 태자였다가 후에 제위[簡文帝]에 오른 蕭綱을 중심으로 한 蕭統 이후 梁代の 유태주의 사조의 시단과 관련이 있다. 蕭綱의 문학관은 그가 자신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집약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처신의 도리는 문장과는 다르다. 처신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신중해야 하지만, 문학은 처신 다음으로 오로지 표현에 구애를 받지 않아야 한다.”⁵⁴⁾고 하면서 문학을 도덕에서 분리시켜 문학 자체의 존재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는 曹丕로부터 비롯된 문학에 대한 독립을 완성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그를 비롯하여 그와 문학을 함께 했던 이른바 궁체시인들은 남성동성애를 대담하게 시가 속으로 끌어들이 수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蕭綱의 취지 아래 그의 신하 徐陵에 의해 편찬된 『玉臺新詠』 속에 그들의 시는 물론 역대로 남성동성애를 반영한 시들을 수집, 수록하여 蕭綱을 중심으로 한 유태주의 문학관을 실천적으로 구현하였던 것이다.

54) 王人恩 編著, 『古代家訓精華』, 蘭州: 甘肅教育出版社, 1997.6, 99쪽: 立身之道, 與文章異, 立身先須謹重, 文章且須放蕩.(「誠當陽公大心書」)

參考文獻

- 徐陵, 권혁석 역, 『옥대신영』, 서울: 소명, 2006.12.
- 吳存存, 이월영 역, 『남자, 남자를 사랑하다』, 서울: 학고재, 2009.5.
- 何水英, 「從『玉臺新詠』看中國古代詩歌對同性戀的表現」, 安徽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제10권 제4기, 2008.12.
- 李慧, 「先秦兩漢文學中的同性戀書寫研究」, 西北大學碩士學位論文, 2010.6.
- 李貽蔭·陶第遷, 「英譯『玉臺新詠』與“同性戀愛”詩」, 長沙水電師院學報(社會科學版), 1990년 제2기.
- 劉達臨·胡宏霞, 『中國性文化史』, 上海: 東方出版中心, 2007.7.
- 劉義慶, 徐震堦 校箋, 『世說新語校箋』, 臺灣: 文史哲出版社, 1985.7.
- 遼欽立 輯校, 『先秦漢魏晉南北朝詩』, 北京: 中華書局, 1983.
- 敏澤, 『中國美學思想史』(卷1), 濟南: 齊魯書社出版社, 1987.
- 上海書店 編, 『二十五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 王人恩 編著, 『古代家訓精華』, 蘭州: 甘肅教育出版社, 1997.6.
- 王書奴, 『中國娼妓史』, 上海: 上海書店, 1992, 影印.
- 汪涌豪·駱玉明, 『中國詩學』(第4卷), 上海: 東方出版中心, 1999.
- 熊九潤, 「中國古代同性戀述略_以古代的詩歌和小說爲中心」, 濮陽職業技術學院學報 제24권 제5기, 2011.10.
- 許輝·蔣福亞, 『六朝經濟史』, 江蘇省: 江蘇古籍出版社, 1993.7.
- 徐陵 編, 穆克宏 點校, 『玉臺新詠箋注』, 北京: 中華書局, 1992.
- 顏之推, 吳玉琦·王秀霞 注譯, 『顏氏家訓譯注』,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8.1.
- 張杰, 「中國古代的同性戀人物」, 中國性科學 제14권 제8기, 2005.8.

張在舟, 『曖昧的歷程_中國古代同性戀史』,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2001.4.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https://ctext.org>)

Abstract

A Study of Male Homosexuality Poetry in 『Yutai Xinyong』

Kwon, Hyek-seok

『Yutai Xinyong』 is the first poetry anthology except Shijing and Chuci. Erotic poems about female, which represent the trend of aestheticism in Liang dynasty of the Southern Dynasties, are included in the book. Among them, some of poems are about male homosexuality in Liang dynasty. It shows us that in Liang dynasty male homosexuality is as common as heterosexuality at least in royalty and gentry class. It signifies not only growing trend of male homosexuality in Liang dynasty, but also that male sexuality which had been ambiguous reached the level of Literati Poetry.

There are some characteristics about ancient Chinese male homosexuality from 『Yutai Xinyong』 .

First of all, there is the inequality of social class between the enjoyer and the provider who offers the pleasure and it is usually one direction only. Therefore, most of the poems rather praised beauty of youth, than expressed affection.

Secondly, the poems allows us to assume the enjoyer were bisexual. This is because that their background also gave the royalty and gentry class man the opportunity of having harem

or concubine or prostitute.

Thirdly, male homosexuality had not been taboo as a literature in the period. It rather means praise of male homosexuality that the presence of it in Literati Poetry. It is because that the enjoyer used to be royalty or gentry class from the scratch. Therefore, homosexuality was free from blames in a feudal society.

Above all,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related to the aesthetic trend led by Xiao Gang. He said that poetry were free from the virtue ethics and it has to be created as what they want. He completed the independence of literature which had been started from Cao Pi.

In this background, he and the so-called palace poets could write those poems about male homosexuality. Through their poetry, they achieved their aesthetic concepts of literature.

Key words : 『Yutai Xinyong』, the Southern Dynasty, male homosexuality, beauty of youth, Xiao Gang, aestheticism

투 고 일 : 2019. 1. 10. / 심 사 일 : 2019. 1. 15.~ 2019. 2. 15. / 게재확정일 : 2019. 2. 20.